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10월 뉴스레터 vol. 69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소식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변화는 시작되었다

채우고 비우고 그림책 웰다잉을 만나다

공간채비 이야기 충청 천안에 채비 2호점을!

채비강좌 누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이야기하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추모장례가 기독교방송 '더콜링'에 소개되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전승욱 채비추모플래너가 장례의 의미, 채비추모장례, 공간채비를 소개하고 그동안 추모장례를 치른 조합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문화에 진심인 채비장례의 영향력이 더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바로보기

<https://youtu.be/2Y0jtGG6tPw?t=497>

변화는 시작되었다



절기가 바뀌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3주 가까이 나를 괴롭히는 손님의 이름은 비염.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넘어갔는데 좀 잠잠해지니 어김없이 오신다. 비염은 감기와 비슷해서 때가 되면 나간다. 그때까지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 내내 비염과 씨름했다. 코에 물을 흘려 보내도, 약을 먹어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저 얇아진 코점막이 계절에 익숙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연휴가 끝나자 사무실로 ‘채비추모장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채비추모장례는 병원 장례식장 아닌 카페 같은 공간에서 하루나 반나절 장례를 치르는 장례다. 조용히 가족과 지인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며 음악도 듣고 시 낭송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고인에 대한 추억담이 이어지면 눈물바다가 되기도 한다. 채비추모장례는 새로운 이별의식이다. 틀에 박힌 장례가 아니라 유족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모습의 장례를 치른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접객하는 방식의 3일장 아닌 방법을 고민했다. 장례가 접객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고민 끝에 병원 장례식장을 벗어나 보기로 했다. 지금의 장례는 업자들이 깔아 놓은 시스템이다. 소비자 아닌 공급자가 만든 문화이다. 결혼은 카페에서 하는데 장례는 왜 안될까. 그런 고민 끝에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공간채비’를 마련했다. 채비 장례의 본질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꼭 충무로가 아니어도 된다. 추모 장례는 어디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은 올봄 제주도에서 마을 장례를 치렀다. 평소 거주하던 곳에 고인을 안치하고 병풍을 세웠다. 재능을 지닌 이들이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이웃 사람들이 좋은 재료를 구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멀리서 온 벗들을 대접했다. 고인은 생전의 뜻대로 만나무 밑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나무를 돌며 서클 댄스를 쳤다. 최선을 다해 삶을 완성한 고인이 평화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채비추모장례는 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연남동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조합원도 있다. 2층 양옥 옥상에서 지상까지 하얀 만장을 드리웠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굿바이 마이 맘’이라 쓰였다. 마당에 돛자리를 펴고,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날랐다. 마당 한쪽에는 생맥주 디스펜서와 커피 머신이 놓였다. 이 조합원은 어머니 1주기 때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을 잔치를 벌였다. 어머니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우리 조합원은 충남 공주에서도 집 장례를 치렀다. 오랫동안 병구완을 하던 아들은 집에서 어머니 임종을 지켰다. 그리고 인근 폐교에 빈소를 차리고 굴건에 삼베상복을 차렸다. 장마 중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빗줄기를 뚫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음식은 식당에서 날라왔다. 상주는 어머니와 이별을 슬퍼하며 목놓아 울었다.

경기도 고양시 장례식장에서는 술과 음식 대신 커피와 다과를 내놓았다. 조화와 조의금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먼 길 찾아온 상객에게 상주는 어머니를 회고한 문집을 선물했다. 서울시 강남의 장례식장에서는 생전에 환경과 협동조합 운동에 전념한 고인의 뜻대로 조화를 받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조합은 남대문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급하게 공수해 음식을 제공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였다. 남양주 별내동의 아파트 안 카페에서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49재를 치렀다. 이 아파트는 단지 안에서는 이미 결혼식과 돌잔치도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자신들만의 장례를 실현하는 이들이 있다. 병원 장례식장의 3일장만 장례는 아니다.

장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그림책 웰다잉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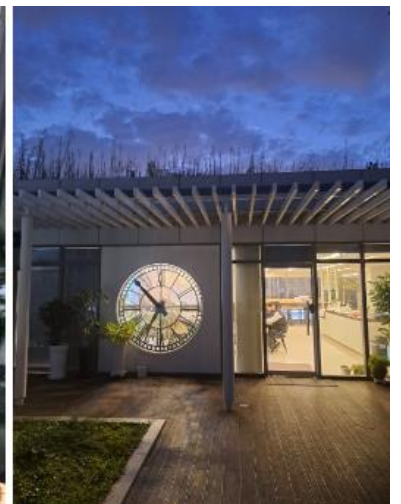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구름 속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분명 좋은데 좀 낯설기도 했다.

전날 저녁에 참석했던 ‘그림책 웰다잉’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그림책 웰다잉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강사 선생님은 그림책 세 권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던 두 시간이 여전히 온몸에 머물고 있는 듯했고, 선생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 주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또 두 시간 내내 고개를 얼마나 많이 끄덕였던가. 내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뒤늦게 일 정도였다.

〈끝의 아름다움〉에서는 끝(죽음)이 궁금한 거북이에게 여러 동물들이 답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과나무 위의 죽음〉에서는 죽음을 거부하던 여우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설탕 한 컵〉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아지를 잃은 아이가 상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마음을 따라갔다. 모두 정답은 없지만 주인공의 삶이 빛나는 과정이었다.





나는 작년 이맘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애도 모임을 진행했고 나의 모의추모식을 치렀다.

죽음을 외면했을 때 삶이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 몸으로 수십 년 겪은 후, 미뤄뒀던 숙제를 꺼낸 셈이었다.

입대 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떠나보낸 후 그냥 묻어 두었던 내 감정을 조금씩 들여다보았고 죽음을 공부했다.

애도 작업이나 죽음 공부를 무겁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 그 과정에서 올라왔다.

그런데 그림책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만났다. 두 시간 내내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놀라웠다.

몇 페이지 안 되는 얇은 그림책을 대하는 방법도 배웠다. 몇 안 되는 글자를 휘익 읽고 아름다운 그림을 쓰윽 보는 것으로는 그림책을 봤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문장이 길지 않은 덕분에, 또 그림에는 보물 찾기 하듯 음미해 볼 것들이 잔뜩 있기에, 감정과 직관과 온몸의 감각에 다가가기 쉽다는 점도 확실히 경험했다.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림책 중 두 권을 샀다. 거실 한편에 두고 자주 펼쳐보려고 한다.

내 마음이 차오르면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웃으며 다짜고짜 죽음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번진다.

김은자 조합원

충청 천안에 채비 2호점을!



충남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천안KYC의 ‘채비나들이’

지난달 25일에 대전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

충남한겨레두레협동조합 김구현 이사와 충남조합 이사로 활동하는 ‘천안KYC’ 이상순 대표와 박은미 회원이 공간채비를 방문했다. 사무국에서는 최근까지의 한겨레두레의 장례사업에 관해서 모두 설명하였다. 우리 조합은 기존 상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추모식 장례와 온라인추모관과 생전 유품정리를 통해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하는 채비함 등 여러 가지 장례관련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집중력있고 밀도있게 대화를 나누었다.

김구현 이사를 통해서 이상순 대표와 박은미 회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들었다.

‘천안(지역)에도 채비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선택지가 좁은 현재의 장례식을 탈피하여 죽음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장례문화에 대한 시스템과 환경의 변화와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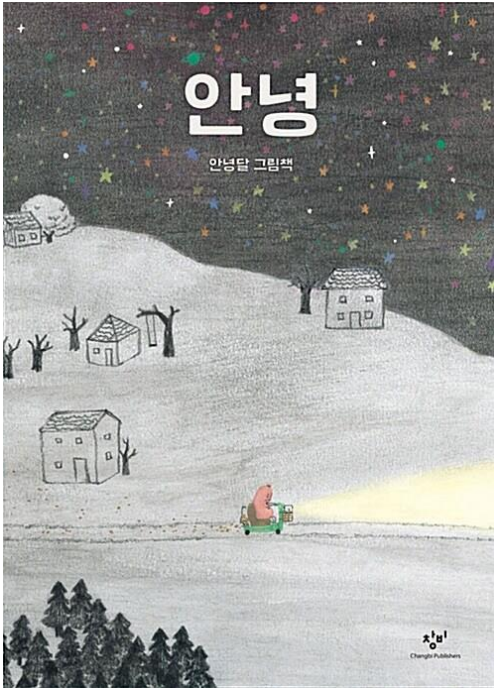
‘새로운 장례문화를 보았다. 1인 가구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되어 참 좋았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의 장례식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꾸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천안에서 조만간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

충남조합이 활동하는 현지에서 더 많은 조합원과 주민들을 만나서 채비장례를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만들고, 나아가 천안에 두 번째 ‘공간채비’와 ‘채비플래너’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아름다운 임종 돌봄을 실천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공간채비 매니저 | 전승욱 부장

아주 잠시 우리는 서로에게 빛나던 별



안녕

안녕달 | 창비

‘드넓은 우주, 어느 별에서 소시지 할아버지는 작은 개를 만났습니다.’

『안녕』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소시지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인 개의 이야기가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펼쳐지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드넓은 우주 속 어느 별에서 시작된다. 소시지 할아버지가 사는 별은 오래되고 버려진 사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거리에서는 엄마와 아이처럼 보이는 찻주전자와 찻잔들, 늙은 부부 같은 다이얼 전화기, 친구와 손잡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떠오르는 크레용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사물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이 별에서 살아간다. 어느 날, 소시지 할아버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가 반려동물 가게 ‘지구별 강아지 나라’ 앞에서 버림받은 개를 만난다.

소시지 할아버지가 죽은 뒤 홀로 집에 남겨진 개는 밖으로 나와 ‘폭탄 아이’와 ‘불’을 만난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머리카락이 한 올만 난 폭탄 아이, 불안한 마음 상태에 따라 불꽃 머리가 일렁인다. 어둠 속에서 소시지 할아버지가 버려진 개를 집에 데려온 것처럼 폭탄 아이는 개에게 손을 내밀고, 개와 폭탄 아이는 숲에서 숨어 지내던 불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이끈다. 고립된 숲에서 소외된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빠져나오는 장면은 나무에 붙은 붉은 불길처럼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답게 그려져 뭉클하다.

『안녕』은 소시지 할아버지의 한 생애를 담아낸 그림책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희로애락이 아름답고 강렬한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1장은 소시지 할아버지의 탄생, 2장은 소시지 할아버지와 개의 만남, 3장은 소시지 할아버지와 개의 이별, 4장은 사후 세계의 별에서 지내는 소시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소시지 할아버지, 개, 폭탄 아이, 불, 그리고 곰 인형까지 모두 홀로 있는 존재다. 작품 속에서 이들이 모두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진 못하지만 머나먼 우주의 별과 별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조용히 안부를 나눈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누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이야기하다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다〉에서 참여자와 함께 영상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영상 ‘죽음에게 말을 걸다’는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 가족을 떠난 보낸 이들이 죽음을 대면하고 치르는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 가족 등 주변의 죽음을 경험하며 추모와 애도보다는 죽음을 둘러싼 분열과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죽음에게 말을 걸다”를 함께 보고 모의 추모식, 도덕 교사 모임, 그림책 교육 등 다양한 죽음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여자는 강좌를 통해 존엄하고 품격있는 마무리를 위해 지난 삶을 정리해보며 현재의 삶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일정: 2023년 11월 2(목), 11월 9일(목) 오후 7~9시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대상: 다큐영화를 보고 죽음과 애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분
- 교육 정원: 20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제공: 채비노트 (월엔딩 노트), 채비 메모리카드 (미디어 보관용), 다과
- 참가 비용: 무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tj4Q4nw8KWb1dkVGA>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주제	내용	강의 날짜
1강	사회적 죽음과 나의 삶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에 말을 걸다’다큐멘터리 1부 영상 감상 (45분)- 사회적 죽음과 우리의 일상 ■ 사회적 참사와 애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 가치 소비형 장례서비스에 대하여: 적정 비용으로 구성하는 나와 가족의 장례식 	11/2(목) 오후 7~9시
2강	애도의 일상, 내 삶 마무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에 말을 걸다’다큐멘터리 2부 영상 감상 (45분)- 가족의 죽음과 죽음 준비의 필요성 ■ 가치소비형 장례 준비1 - 사전장례의향서, 조문보작성, 적정 부고문자, 유품 스토리텔링 등 ■ 가치소비형 장례 준비2 - 나의 추모식순서, 추도사, 메모리얼포스트 작성, 추모식공간꾸미기 5회차, 모의장례식 영상 보기와 소감나누기 	11/2(목) 오후 7~9시

2023년 9월

전성환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희인 조합원 배우자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영철 조합원 부친상
오세중 조합원 모친상
정서진 조합원 부친상

이재성 조합원 모친상
김용식 조합원 모친상
형대조 조합원 장인상

2023년 8월

우경호 조합원 빙모상
이수중 조합원 부친상
이상군 조합원 부친상
홍혜령 조합원 부친상
이현섭 조합원 부친상
신희순 조합원 사돈상
김연희 조합원 남매상
윤경화 조합원 부친상
권오숙 조합원 형부상

김소영 비조합원 시모상
지정구 조합원 빙모상
노세극 조합원 지인상
윤창훈 조합원 부친상
이서연 조합원 부친상
권영화 조합원 모친상
정정민 조합원 모친상
이옥선 조합원 부친상
심범진 조합원 부친상

박선애 조합원 부친상
신운섭 조합원 부친상
김낙준 조합원 빙모상
김익동 조합원 모친상
김성한 조합원 부친상
임종진 조합원 배우자상
임도환 조합원 모친상
황광원 조합원 지인상
서병훈 조합원 빙부상

2023년 7월

한재연 조합원 부친상
우진교통 류성열 모친상
권대순 조합원 빙부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미정 조합원 부친상

항별 조합원 부친상
한겨레신문사 박민애 시모상
박승정 조합원 부친상
정미숙 조합원 모친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모친상
장창덕 조합원 모친상
이진민 조합원 지인상
동행 문은옥 시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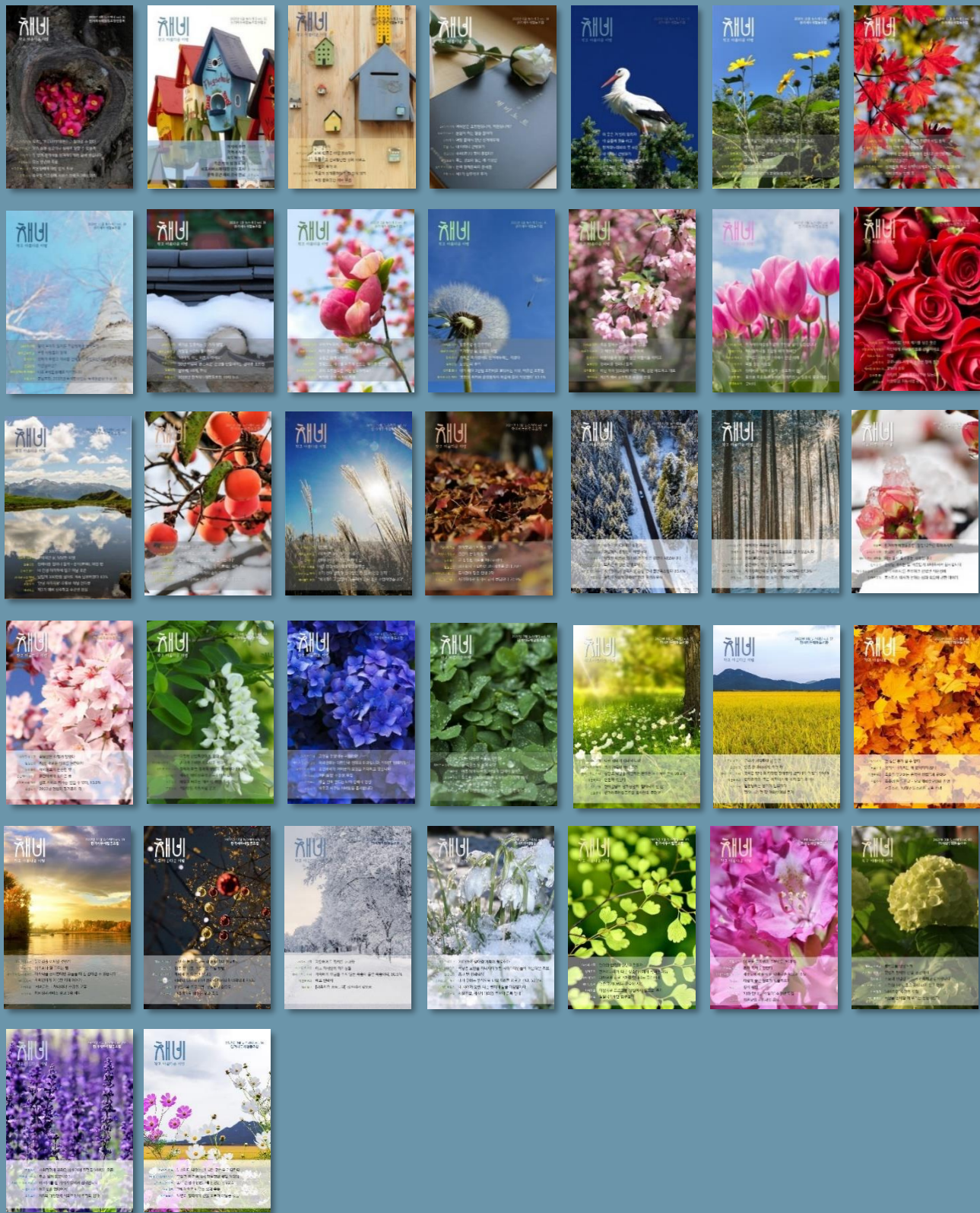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